

인쇄 문화의 꽃 - 판화의 원류를 찾아

한국고판화학회 제1차 해외 학술답사

전통문화 보존은 무강 연화박물관처럼

중국 전통 연화를 모아 놓은 박물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잘 정리된 하북성 무강 연화박물관을 한국고판화학회 회원들이 찾았다.

무강 연화박물관은 1985년에 건립된 중국 제일의 연화(전통 목판화)전문 박물관으로, 무강현의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다.

무강 연화 박물관의 설립목표에 대해 담당 큐레이터는 "하북성 무강지역의 연화를 수집·보호하고 연구해, 중국의 전통문화를 널리 선양하고 계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국가 등록 박물관이 800개관을 넘어 1,000개관을 바라보는 한국에서도 박물관의 성격에 맞춰 박물관 건물의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적인 팽창에 걸맞게, 질적인 부분까지도 세심한 국가적인 배려가 고려돼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무강 연화 박물관의 총면적은 25,100㎡이며 건평은 4,700㎡이다. 전시관, 전통공예실, 휴게소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종 화초와 수목, 연못, 푸른색의 벽돌로 포장한 산책로 등 아름다운 주변 환경이 백색을 위주로 한 박물관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었다.

무강 연화박물관은 1992년 10월 4일, 최초로 전시관을 완성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했으며, 2002년에 다시 확장과 보수를 거쳐 개관했다. 현재 5개의 전시관과 하나의 작업실이 있으며, 제1전시관은 무강 연화가 탄생하게 된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 자연적인 조건, 전성기의 규모 등을 소개하고 있었다.

전시관에는 청대 무강연화의 전성기와 혁명전성시기의 작품을 중심으로 진열하는 등, 모두 1,000점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전시관에는 청대 무강연화의 전성기와 혁명전성시기의 작품을 중심으로 진열하는 등, 모두 1,000점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작업실에는 전통 목각화를 제작하는 전 과정을 재현시켜 놓아, 관람객들이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가며 자신이 직접 작품을 완성하여, 전통 목각화의 맛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해, 박물관 교육에 일찍부터 눈 끈 곳임을 알 수 있었다.

전임 박물관장은 민간에 남아 있는 목판을 발굴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호구별로 방문하며, 역대의 연화목판과 진귀한 작품을 세밀히 조사해, 지금의 소장품을 수집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특히 2003년 10월 11일, 무강현(武強縣) 구성촌(舊城村) 고씨(賈氏) 고택의 지붕에서 발굴된 연화 목판 55장은 무강 연화박물관

이 중국 유수의 박물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한 계기가 됐다. 결국 박물관의 차별성은 소장품의 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사례다.

하지만 근래에 개관되는 우리나라의 박물관들은 소장 유물의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 크게 짓고, 디오라마 등 전시 인테리에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현재, 무강 연화박물관의 소장품은 목각판, 연화작품, 민속품의 3종류로 모두 1만여 점에 달한다. 목각판은 청대초기부터 현

1992년 개관, 연 7만명 방문

1~5전시실에 무강年畵 총망라

설계부터 소장 유물까지 특성화

건축물, 북방 민간주택 묘사

체계적 운영 한국도 배워야

대의 작품까지 소장돼 있다. 연화작품은 고대 민속신앙을 반영한 신상화(神像畵)나 사회역사의 변혁을 반영한 신문화(新聞畵)가 총망라돼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개관 이후, 매년 평균 국내외 관람객 7만여 명이 박물관을 찾고 있다. 또, 초중학생과 미술학교 학생들의 교육에 중점을 둔 초중학생은 무료로 관람 시키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미술 전공 학생들에게는 체계적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목각판화 공예와 창작기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실습실을 제공해 국내 대학 미술학과에 제 2 강의실이 되고 있었다.

무강 박물관은 국내외 순회전시회도 꾸준히 추진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중국에서는 북경 고궁박물관, 수도박물관, 국가박물관, 민족 문화궁 등과 해외의 한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스페인 등지에서 전문



중국 하북성 무강 연화박물관 전경. 중국 북방 가옥의 형태로 지어진 이 박물관은 무강 지역 연화를 총망라하고 있는 중국 유수의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물관 수장고 전경. 유물 보존과 체계적인 수집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전시실 내부. 무강 연화의 발생 역사부터 현황까지 정리했다.



박물관 전시실을 중국 민가처럼 꾸며놔 유물의 가치를 더욱 살리고 있다.

적인 주제의 전시회를 진행한 바 있다.

무강 연화박물관에서는 전통 연화를 제작하는 각수와 인출장들을 길러내는 데도 심혈을 기울인 결과 중국 전통 연화 장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마시찬 무강 연화박물관 부관장 같은 인물을 배출하기도 했다.

무강 박물관에서는 소장 목판을 이용한 인출작업을 통해, 다양한 서적들도 출판하고 있었다. 특히 무강연화박물관의 고문인 보송연(薄松年)교수가 편찬한 하북무강연화예술(河北武強年畵藝術)과 장춘봉(張春峰)선생이 편찬한 하북무강연화(河北武強年畵)는 국내외 학술계의 호평을 받고 있

는 서적들이다.

이번 무강연화박물관의 방문을 통해, 아시아 고판화의 다양성 중에 중국 연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자못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무엇보다 중국 연화는 한국의 민화처럼 질곡진 민중들의 삶이 깎여 나오는 생활예술의 절정이라는 것이었다.

그 옛날 세계는 비단을 통해 길을 만들고 교류를 했다. 인쇄문화의 꽃 고판화 역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인들의 정보 교류에 한 축을 담당했으리라.

실�크로드만 아니라 옛 세계인들이 정보를 소통했던 '프린트 로드'의 재건이 시작됐으면 하는 이번 중국 학술교류 행사를 통해 발원을 해 본다.

글=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 사진제공=황진·정찬민·무강 연화박물관

탱화 청동불상 전문 [ 1,000불 3,000불 10,000불 ]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로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군 - 원만당 석운

해동 불교 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시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은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십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1통, 갑근세 증명1통, 전세 계약서 사본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대구 (지장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053)632-0078 010-9243-0113 범성스님 합장

담당: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7자빌딩1505호(해피시티 내)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 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 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 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주세요.

담당스님 만해 합장